

2025.08.01

테마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산

Tether | USDT
USD Coin | USDC
BUIDL | BUIDL
USDS | USDS
USDe | USDe

작성자

강동현 | Donghyun Kang
donghyun.kang@korbit.co.kr

최윤영 | Yoonyoung Choy
yoonyoung.choy@korbit.co.kr

주요 자산 가격(2025.07.28)

BTC	
USD	\$119,490
KRW	₩162,836,000
김치프리미엄	-1.2%
ETH	
USD	\$3,859
KRW	₩5,265,000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분화: 온체인 경제에서의 기능적 분업

거래소 및 송금 중심의 USDT, 디파이 중심의 USDC

대표적인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USDT와 USDC는 각각 거래소 및 송금, 디파이 유동성이라는 상이한 온체인 사용 양상이 나타난다. USDT는 트론 기반 송금과 중앙화 거래소 간 정산에 집중되며 '거래소 및 결제 중심 달러'로 기능하고, USDC는 이더리움 및 레이어2, 솔라나 등에서 디파이의 담보 및 거래 자산으로 활용되며 '디파이 중심 달러'로 자리잡았다. BUIDL은 미국 국채 기반 수익을 자동 분배하는 토큰화 펀드로, 주요 거래소와 디파이 담보로 채택되며 '실물자산 수익형 달러'로 구분된다. 한편 USDe, USDS/DAI 등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다양한 담보 구조와 수익 설계를 기반으로 디파이 내에서 예치, 대출, 수익 배분 자산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자산별로 온체인에서의 기능이 명확히 분화**되고 있다.

체인별로 달라지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

스테이블코인의 온체인 활용 양상은 체인의 수수료 구조, 처리 속도, 디파이 생태계 구성에 따라 명확히 달라진다. 이더리움은 높은 보안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과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의 담보·예치에 활용되고 있으며, 트론은 낮은 수수료와 빠른 전송 속도로 인해 거래소 간 송금과 소액 결제에 최적화되어 있다. 솔라나는 고빈도 디파이 트레이딩 중심의 리테일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는 체인으로, USDC의 소액·고빈도 트레이딩이 집중되고 있으며, 베이스와 아비트럼처럼 같은 레이어2 체인이라도 각각 밌코인 중심 트레이딩과 파생상품 중심의 USDC 수요에 특화되는 등 기능적 역할이 다르게 구성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일한 디지털 달러가 아닌, 각 체인 내 경제 구조와 맞물려 작동하는 기능별 인프라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분화와 향후 흐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단일 수요나 기능에 기반한 일원적 구조가 아닌, 사용자·수익 구조·체인 인프라 세 축을 중심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분화는 각 체인과 자산이 고유 기능을 갖춘 온체인 특구로 진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시장은 투자자 유형과 수요 성격에 따라 규제 환경 내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온쇼어(onshore)' 시장 집중과, 각 체인의 특화된 인프라에서 새로운 유니콘을 발굴하려는 자금 흐름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는 시장에서 승자는 이러한 다층적 분화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체인·자산 간 전환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최근 2년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공급은 2020년 7월 약 110억 달러에서 2025년 7월 약 2,500억 달러까지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2025년 7월 일명 ‘[GENIUS Act](#)’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되면서, 제도권 금융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규제 명확화 움직임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을 급격히 끌어올렸다.

최근 테더의 실물경제 결제 등 일부 사례가 부각되며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결제용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BCG의 스테이블코인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실물경제에서 결제에 활용된 스테이블코인 거래 비중은 전체의 6%에 불과하다. 반면 2024년 기준 전체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의 88% 이상이 중앙화·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아비트라지나 유동성 공급 용도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난다(Figure 1). 따라서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을 받는 실물경제보다는 주로 온체인 경제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활용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온체인 용처는 크게 세 가지로 손꼽힌다. 첫째, 거래소(CEX, DEX)에서 거래 페어 자산으로 활용이 되며, 둘째로 낮은 가치 변동성으로 인해 디파이(DeFi) 프로토콜에서 담보 및 예치 자산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달러 대체 수단으로 가치 저장 수단이나 P2P 결제, 소액 송금에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자산별로 온체인 활용 양상이 뚜렷하게 달라진다. 예컨대 같은 스테이블코인이라도 USDT와 USDC는 체인 분포 및 사용 양태가 상이하다. 체인별로도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등 네트워크별 경제 구조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서는 자산별·체인별로 세분화하여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활용을 분석한 리포트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리포트는 **스테이블코인의 온체인 사용 양상을 자산별, 체인별로 구분해 심층 분석한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거래 수단 및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 온체인 경제 구조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 블록체인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Figure 1: 2024년 스테이블코인 섹터별 거래량 비중

출처: BCG

USE CASE	PERCENTAGE	TRANSACTION VALUE	SOURCES
Crypto Trading Pairing	88%	\$23.0 trillion	CEX.IO, Chainalysis, CoinMetrics. Assumes ~88% of stablecoin volume is for arbitrage and liquidity routing between CEXs/DEXs, as consistently reported by analytics platforms and echoed in institutional crypto flow studies.
On/Off-Ramping	4%	\$1.0 trillion	MetaMask, Crypto.com, Visa OnChain Dashboard. Refers to stablecoin flows bridging wallets and exchanges. Assumed at 4% based on Allium wallet inflow/outflow heuristics and usage spikes during market events.
Tokenized RWA ¹⁷ Settlement	3%	\$0.8 trillion	Franklin Templeton, BlackRock, Allium. Based on tokenized money market fund pilot volumes and early traction in on-chain treasuries. Estimated at 3% due to current AUM/tokenization use still being low versus total stablecoin flows.
Payments - P2P	2%	\$0.5 trillion	Visa OnChain Dashboard, Circle, Chainalysis. Includes wallet-based transfers and remittances. Growth driven by emerging markets using stablecoins as daily USD proxy, assumed at 2% of volume.
Payments - B2C/C2B	2%	\$0.4 trillion	Visa OnChain Dashboard, Circle. Derived from Circle's merchant integration data (e.g., Shopify, Stripe) and on-chain retail spend tracking. Assumed modest growth at 1.5% as commercial usage expands.
Payments - B2B	2%	\$0.4 trillion	Visa OnChain Dashboard, Chainalysis. Includes stablecoin usage in treasury, FX, and invoice settlement by SMEs and fintechs. Also estimated at 1.5%, with observed adoption by global service providers.
Total	100%	\$26.1 trillion	Visa Onchain Dashboard chart showing ~\$26.1 trillion unfiltered stablecoin txn values and ~4.5B unfiltered stablecoin txns across major blockchains and assets.

Source: Visa & Allium stablecoin dashboard.¹⁸

스테이블코인 자산별 온체인 활용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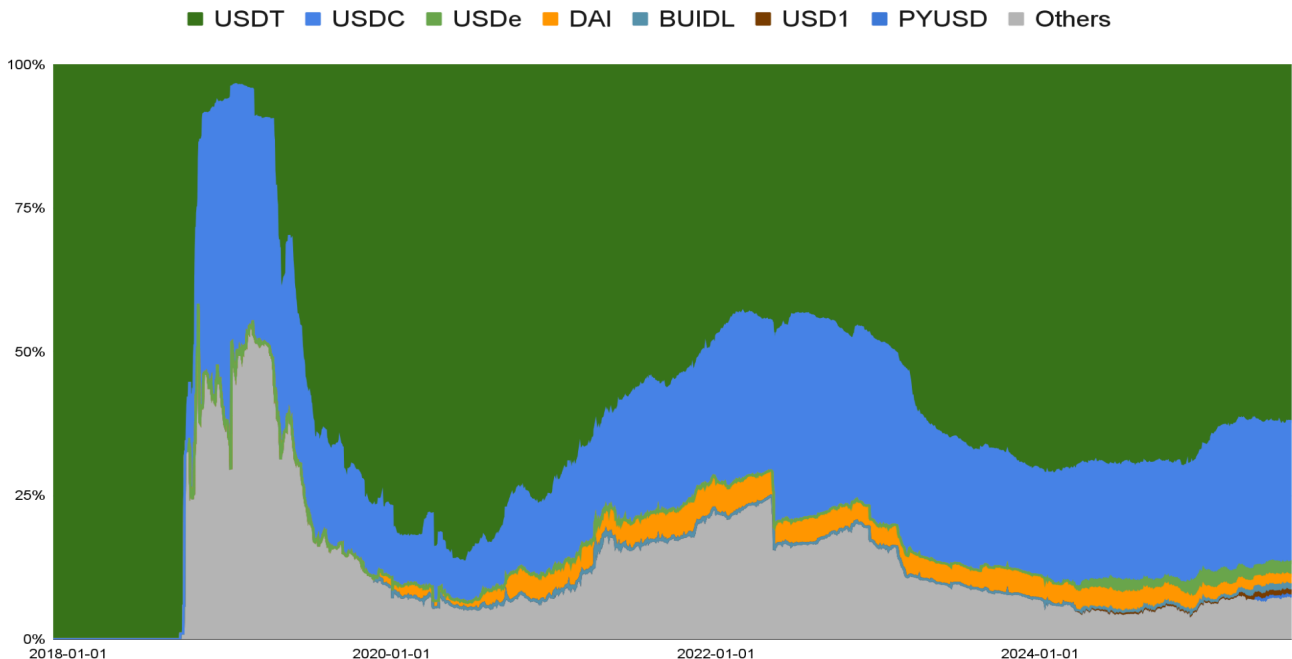
본 섹션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주류인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을 중심¹으로, 각 스테이블코인들이 온체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본 리포트에서 공급량(supply)은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온체인 발행 수량을 의미하며, 거래량(transaction volume)은 블록체인 상에서 확인 가능한 온체인 트랜잭션 전송량을 기준으로 정의한다.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USDT와 USDC 두 자산이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2025년 7월 기준 스테이블코인 전체 시가총액은 약 2,500억 달러 수준인데, 그 중 USDT가 약 1,600억 달러, USDC가 약 600억 달러를 차지해 두 자산의 합계가 85%를 상회하고 있다(Figure 2). 반면 FDUSD, TUSD, PYUSD 등 다른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개별 점유율은 1% 미만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유동성, 거래 구조 등 핵심 지표는 이 두 자산의 흐름만으로도 대부분 설명된다.

Figure 2: 스테이블코인 공급량 도미넌스

출처: 코빗 리서치, DeFiLlama



¹ 스테이블코인의 유형에 대해서는 코빗리서치 “[스테이블코인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2025.05.23\)](#)” 참조.

USDT는 2024년 2월 기준 현물과 파생을 합친 [중앙화 거래소\(CEX\) 체결 물량의 83%의 페어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USDC는 2024년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². 즉 USDT와 USDC는 ‘거래소 유동성’과 ‘디파이 거래’라는 두 축에서 각각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단순 페깅을 넘어 수익 기능을 일부 탑재한 형태의 자산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 국채 기반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인 BUIDL이 있다³. 이에 본 섹션에서는 USDT, USDC와 BUIDL의 온체인 활용 양상 또한 함께 살펴본다.

USDT

USDT는 2014년 출시 이후⁴ 가장 오랜 기간 시가총액 1위를 지켜온 스테이블코인으로, 2025년 현재 약 1,600억 달러 이상의 공급량을 기록하고 있다. USDT는 여러 블록체인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주로 이더리움과 트론에서 대부분이 공급되고 있다. 2023년까지는 이더리움과 트론에서의 공급량은 비슷했으나, 2024년부터는 트론에서의 공급량이 이더리움에서의 공급량을 초과하여, 현재는 트론이 USDT 공급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Figure 3). 이렇게 트론에서 USDT의 공급이 급증한 이유로는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송금 속도로 인해 거래소 간 송금이나 P2P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섹터별 공급량을 보면, CEX에서 약 475억 달러가 공급되는 반면, 디파이에서는 21억 달러만이 공급되고 있다(Figure 4). 즉, 온체인에 존재하는 USDT는 대다수가 거래소에 유동성으로 공급되어 있으며, 디파이에서는 활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USDT가 ‘디파이 달러’보다는 ‘중앙화 거래소 및 결제 중심 달러’의 성격이 강하며, 디파이에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² Circle, 2025 State of the USDC Economy: USDC as a Platform for Global Prosperity.

³ BUIDL은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과 설계상 차이가 있으나, 당사는 BUIDL 등 토큰화 국채를 광의의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2025.05.23\)](#)” 참조.

⁴ 2014년 10월 발행 당시에는 리얼코인(Realcoin)이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 옴니(Omni) 레이어에서 발행되었으나, 같은 해 11월 테더(USDT)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출처: [Wikipedia](#))

Figure 3: USDT 블록체인별 공급량

출처: 코빗 리서치, Artemis analy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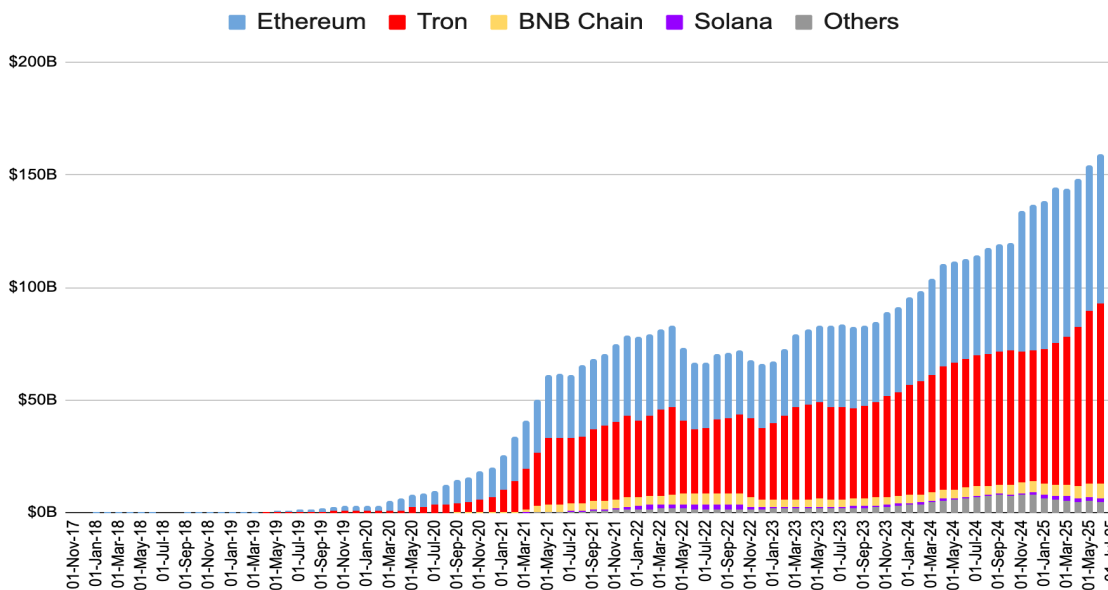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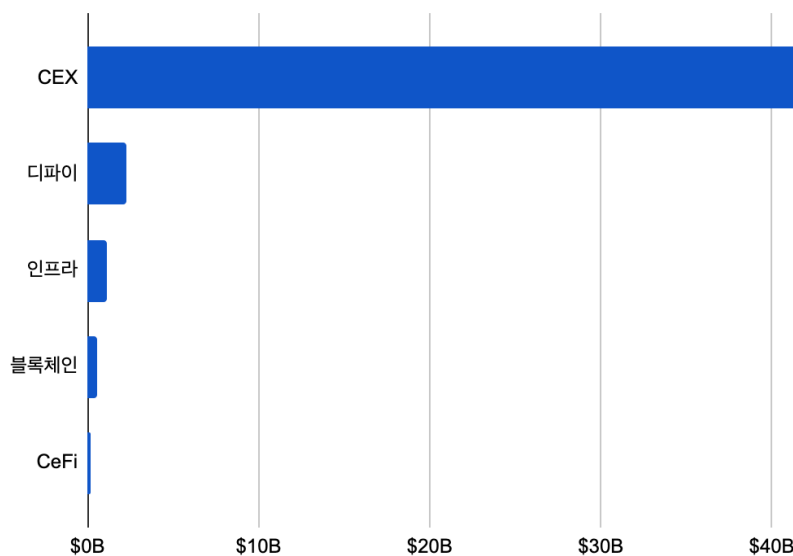


Figure 4: USDT 섹터별 공급량 비중

출처: 코빗 리서치, Artemis analytics

* 2025년 7월 22일 기준



이는 거래량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3개월 동안 USDT의 거래량을 섹터별로 살펴보면, CEX에서는 전체의 약 78%(7,265억 달러)가 거래되었으나, 디파이에서의 거래는 약 19%(1,746억 달러)만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MEV, 마켓 메이커, 인프라 부분을 모두 합쳐도 4% 비중으로 제한적이다(Figure 5). 실제 애플리케이션별 공급 상위 수준을 살펴봐도 Aave를 제외한 1~10위 모두 바이낸스, OKX, 바이빗 등 CEX 지갑이 차지해 유통량과 거래량 모두 CEX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Figure 6).

Figure 5: USDT 최근 3개월 거래량 비중

출처: 코빗 리서치, Artemis analytics

★ 2025년 7월 22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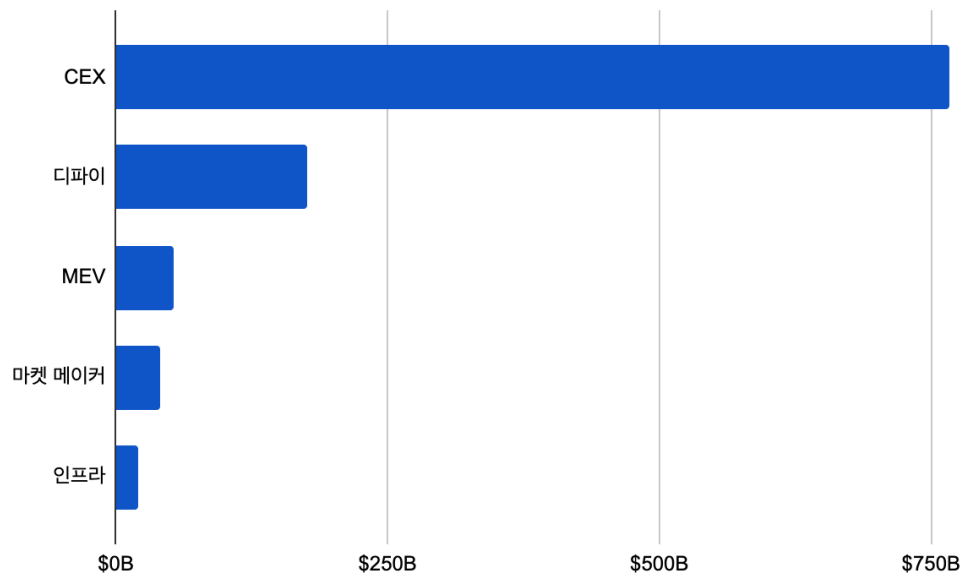


Figure 6: 애플리케이션별 USDT 공급량 상위 비중

출처: 코빗 리서치, Artemis analy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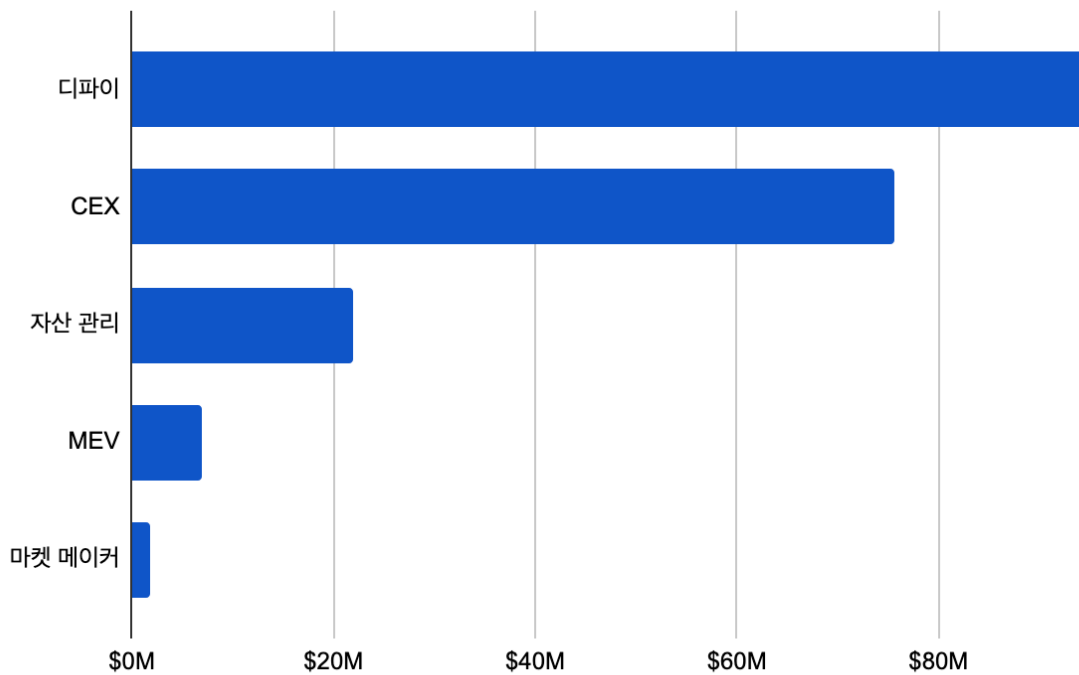
애플리케이션	섹터	블록체인	공급량 (2025년 7월 22일 기준)	최근 30일 거래량 (2025년 7월 22일 기준)
바이낸스	CEX	이더리움	183.8억 달러	515.4억 달러
바이낸스	CEX	트론	87.4억 달러	633.8억 달러
OKX	CEX	이더리움	78억 달러	118억 달러
바이빗	CEX	이더리움	18.4억 달러	35.7억 달러
Aave	디파이	이더리움	16.1억 달러	153.2억 달러
바이빗	CEX	트론	15.5억 달러	85.8억 달러

다만 트랜잭션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 3개월 동안 디파이 섹터에서 트랜잭션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Figure 7). 이는 CEX에서의 매매 체결이 대부분 내부 장부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거래소 내 지갑 간 이동이나 거래소와 외부 지갑 간 입출금과 같은 트랜잭션만이 온체인에 기록되며, 이로 인해 디파이 트랜잭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착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공급량 상위 디앱 목록에서 트론 기반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때, 트론에서의 디파이 사용량은 미미하며 USDT 사용이 거래소 지갑 간 이체 또는 개인 지갑 간 송금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Figure 7: 최근 3개월 USDT 트랜잭션 비중

출처: 코빗 리서치, Artemis analytics

* 2025년 7월 22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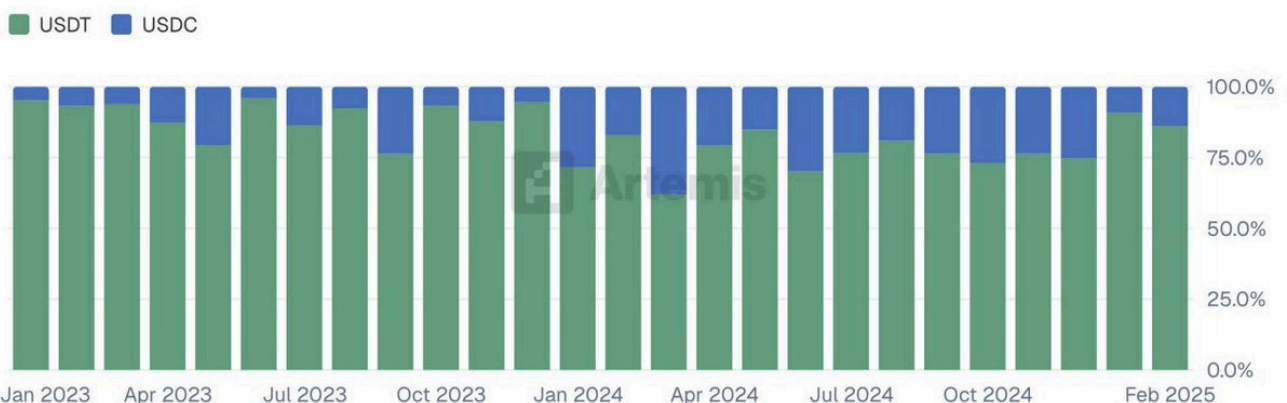


한편 실물경제 결제(payment) 부문에서는 USDT의 활용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발간된 [Artemis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결제에 사용된 스테이블코인 중 실물경제 결제에서는 USDT의 점유율이 80%를 차지했다(Figure 8). 결국 USDT는 공급량의 다수가 CEX로 유입되며, 트론 네트워크를 통한 저수수료 송금이 잦고, 온체인 결제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USDT는 ‘중앙화 거래소·결제 중심 달러’로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Figure 8: 스테이블코인 자산별 결제 사용 비중

출처: Artemis research

Stablecoin Payments by To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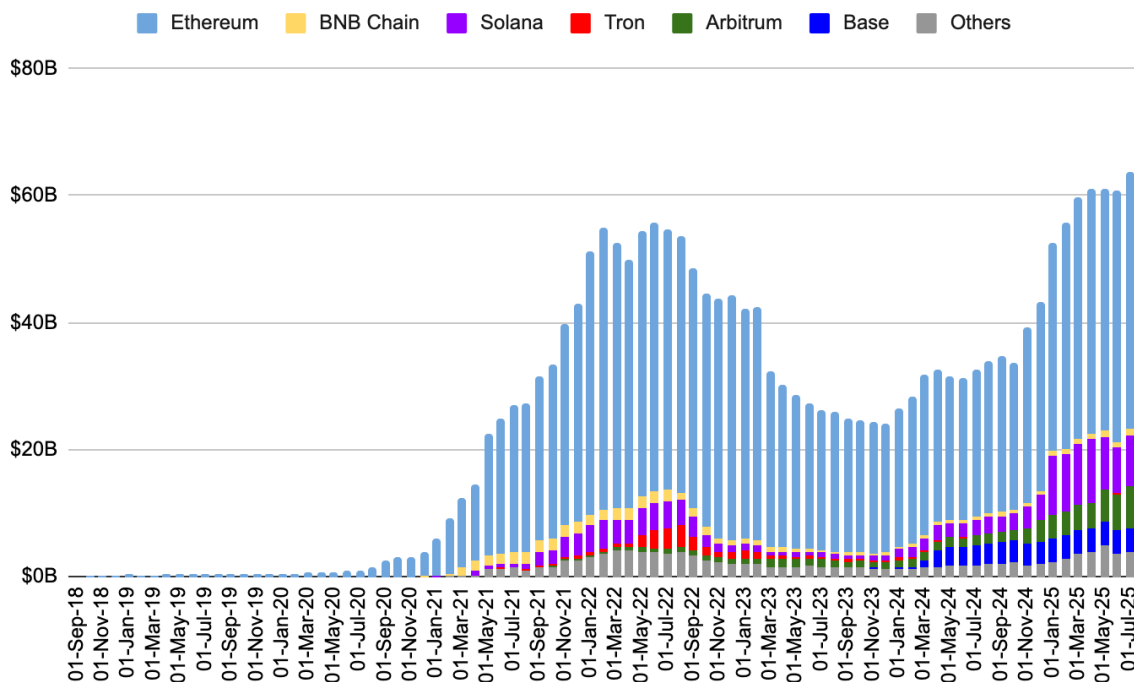


USDC

USDC는 2018년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합작하여 출시한 이후 빠르게 성장해 2025년 현재 약 600억 달러 이상을 공급하며 시가총액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트론, 이더리움에 고르게 분포된 USDT와 달리, USDC는 이더리움에서 약 70%가 공급되고 있다. 다만 2024년부터는 가스비 절감과 리테일 접근성 확대를 이유로 솔라나, 베이스, 아비트럼 등에서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23-2024년 솔라나에서 1년 새 USDC 유통량이 50억 달러 이상 증가해 단일 체인 기준 두 번째로 많이 배포된 체인이 되었으며, 베이스에서도 출시 6개월 만에 10억 달러를 넘어섰다(Figure 9).

Figure 9: USDC 체인별 공급량 비중

출처: 코빗 리서치, Artemis analytics



체인별 거래량 규모를 보면, 2023년 하반기부터는 솔라나에서, 2024년부터는 베이스에서 거래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Figure 10). 이는 해당 시기 솔라나와 베이스에서 밌코인 중심의 온체인 디파이 활동이 급격히 활성화된 것과 맞물려 있으며, 밌코인 트레이딩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 또한 2024년 11월부터 [코인베이스 월렛이 베이스 체인의 USDC 전송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균 트랜잭션 규모를 기준으로 여전히 이더리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솔라나와 베이스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친 것을 봤을 때(Figure 11), 솔라나와 베이스에서의 USDC의 활용은 주로 소액 중심의 리테일 트랜잭션에 집중되었다고 풀이된다.

Figure 10: USDC 체인별 거래량 추이

출처: 코빗 리서치, Artemis analy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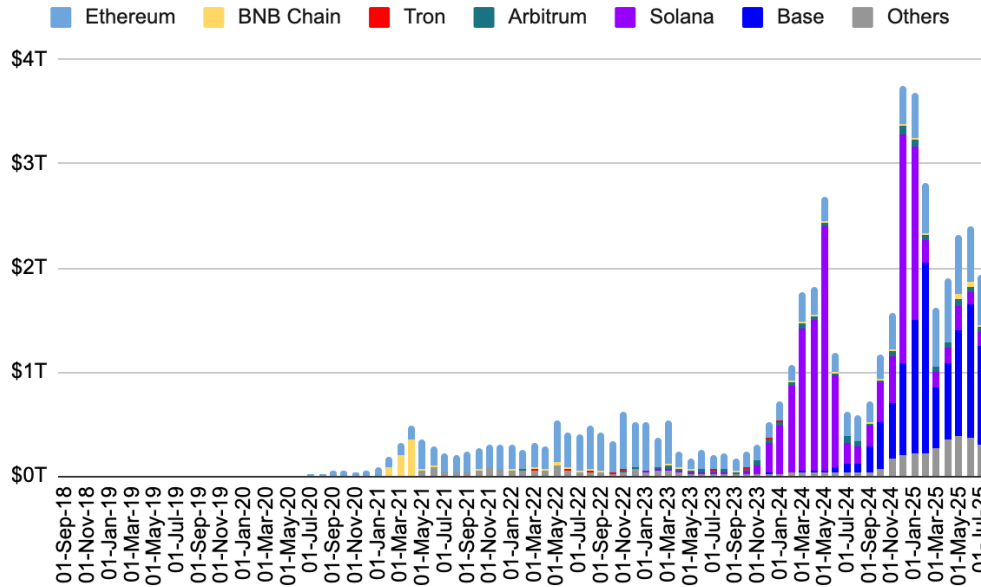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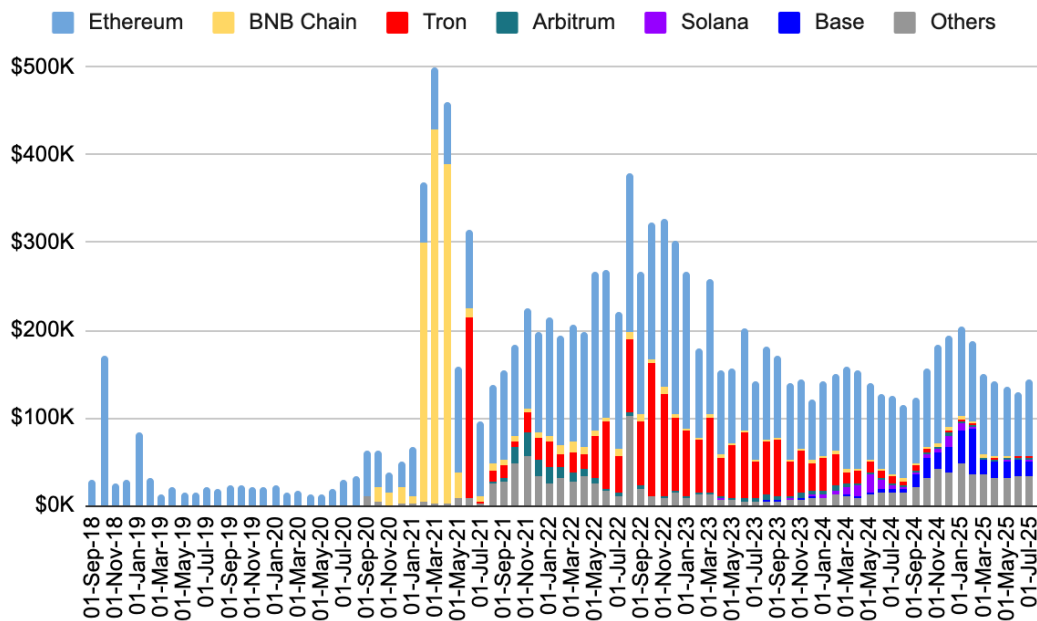


Figure 11: USDC 체인별 평균 트랜잭션 규모⁵ 추이

출처: 코빗 리서치, Artemis analytics



USDC의 섹터별 공급량을 살펴보면, USDC도 CEX 공급량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디파이 공급량 비중이 USDT에 비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USDT의 CEX 공급량 대비 디파이 공급량 비중은 4%인데 비해, USDC의 CEX 공급량 대비 디파이 공급량 비중은 41.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Figure 12). 또한 거래량 비중을 살펴보면 USDC 최근 3개월 거래량은

⁵ 평균 거래 규모(average transaction size)는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총 거래 금액을 거래 건수로 나눈 값으로, 한 건의 트랜잭션이 얼마의 가치를 옮기는지를 나타낸다. 동일 체인 내 사용 행태(예: 소액 리테일 결제 vs. 대규모 기관 정산)를 가능하는 대표적 지표로 활용된다.

디파이가 현재 거래량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MEV, 3위가 CEX 거래로 집계된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USDC는 USDT에 비해 상대적으로 디파이 섹터 활용 비중이 높다. 또한 MEV⁶의 상당부분이 디파이 트랜잭션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CEX보다 높은 MEV 거래량도 USDC가 디파이 중심의 거래 구조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Figure 13). 즉 USDT는 ‘중앙화 거래소·결제 중심 달러’ 성격이 강하다면, USDC는 ‘디파이 친화적 달러’의 성격을 가진다.

Figure 12: USDC 섹터별 공급량 비중 출처: 코빗 리서치, Artemis analytics
 * 2025년 7월 22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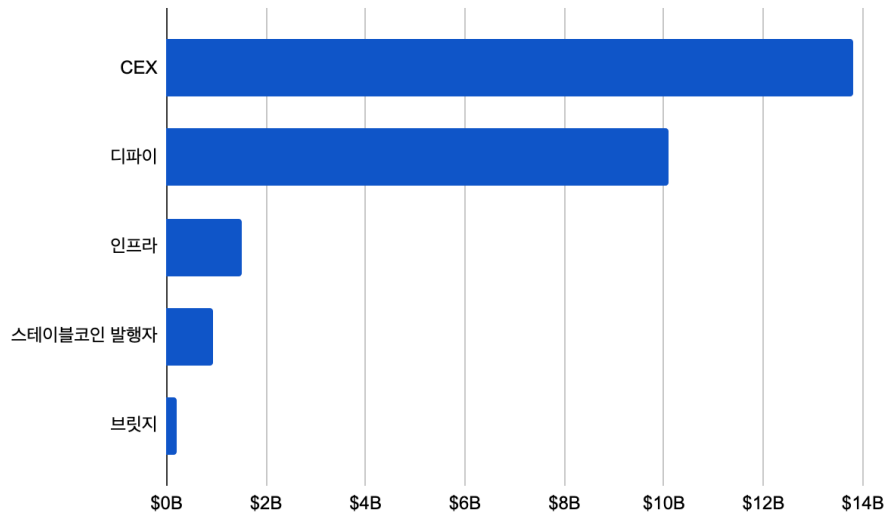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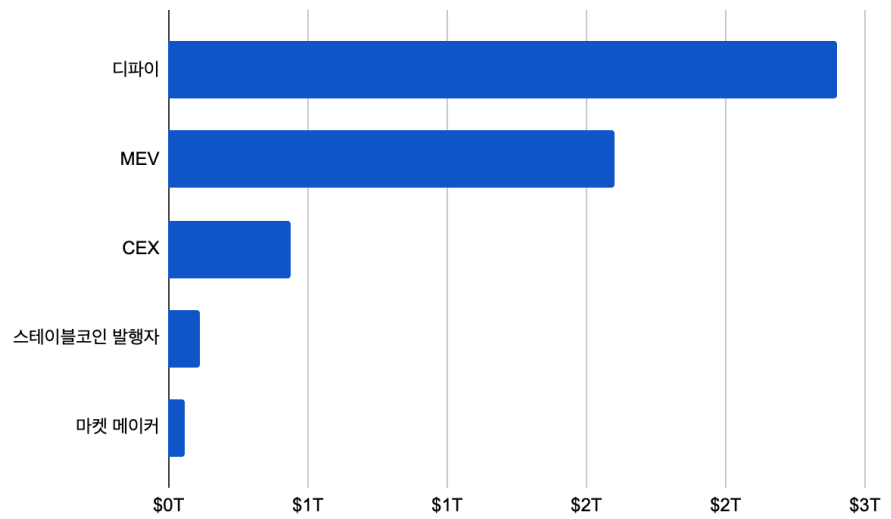


Figure 13: USDC 섹터별 거래량 비중 출처: 코빗 리서치, Artemis analytics
 * 2025년 7월 22일 기준



⁶ MEV(Maximal Extractable Value)란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의 순서, 포함 여부,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블록 생성자(또는 검증자)나 봇 운영자가 추가적인 수익을 추출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MEV는 특히 디파이 환경에서 두드러지며, 스왑, 청산, NFT 민팅과 같은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트랜잭션을 앞뒤로 끼워 넣는(front-running, back-running, sandwich attack 등)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한다. (출처: [a16z crypto](#))

또 현재 USDC의 애플리케이션별 공급량을 살펴보면, USDT와 달리 디파이 프로토콜이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대표 사례로 탈중앙 선물거래소(Perp DEX)인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에 약 486억 달러 상당의 USDC가 예치되며 전체 애플리케이션 중 2위에 올랐다. 하이퍼리퀴드는 2023년말 출시 이후 [아비트럼 체인을 통해 USDC가 유입되면서](#)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최대 규모의 Perp DEX로 자리잡았다. 또한 메이커다오(MakerDAO)에는 195억 달러 상당의 USDC가, 에테나(Ethena)에는 약 56억 달러가 예치돼 활용되고 있다(Figure 14). 이처럼 주요 디파이에서 USDC의 공급량을 봤을 때, 현재 USDC의 디파이 특화 달러로의 위치가 공고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4: 애플리케이션별 USDC 공급량 상위 비중

출처: 코빗 리서치, Artemis analytics

애플리케이션	섹터	블록체인	공급량 (2025년 7월 22일 기준)	최근 30일 거래량 (2025년 7월 22일 기준)
바이낸스	CEX	이더리움	72.8억 달러	408.4억 달러
하이퍼리퀴드	디파이	아비트럼	49.5억 달러	36.3억 달러
코인베이스	CEX	베이스	22.3억 달러	11.4억 달러
메이커다오	디파이	이더리움	19억 달러	119.2억 달러
노시스(Gnosis)	디파이	이더리움	13.5억 달러	49.5억 달러
크라켄	CEX	이더리움	9.3억 달러	40.9억 달러
Aave	디파이	이더리움	8.2억 달러	252.7억 달러
에테나	디파이	이더리움	6억 달러	21.8억 달러
바이낸스	CEX	솔라나	5.7억 달러	73.7억 달러

BUIDL

USDT와 USDC 외에도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인 BUIDL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공급량 순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BUIDL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이 운용하는 단기 국채 기반 머니마켓펀드를 토큰화한 상품으로, 1 BUIDL은 1달러의 순자산가치(NAV)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담보자산은 환매조건부채권(Repo)과 3개월 미만 단기 미국 국채 등 안정적인 실물자산으로 구성된다. BUIDL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은 온체인에서 토큰 보유자에게 분배되며, 이를 통해 BUIDL은 달러 연동 안정성과 함께 국채 금리에 기반한 수익을 제공하는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으로 기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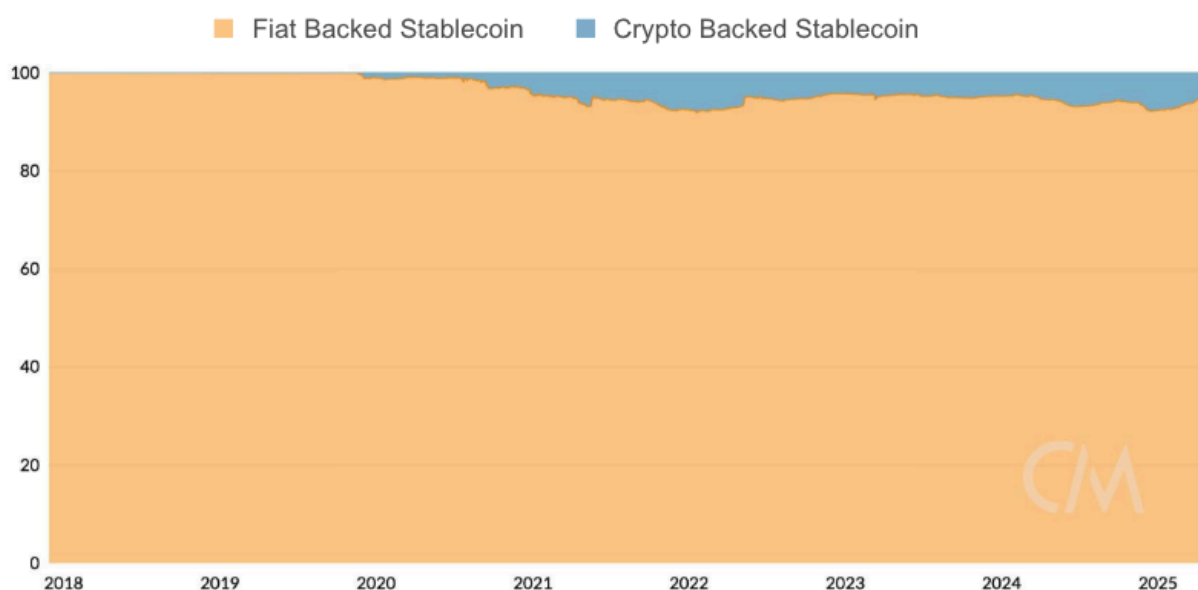
BUIDL은 이러한 국채 기반 수익 구조로 인해 USDT나 USDC 등 기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과 차별화되는 ‘실물자산 수익형 달러’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BUIDL은 USDT, USDC 대비 규모는 작으나 CEX, DEX와 디파이(DeFi) 분야에서 활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립토닷컴\(Crypto.com\)](#)과 [데리빗\(Deribit\)](#) 등 주요 거래소에서는 BUIDL 토큰을 마진 거래의 담보자산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에테나 랩스(Ethena Labs)는 [BUIDL을 준비 자산으로 활용한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USDtb를 출시](#)해 투자자들이 BUIDL을 USDtb로 교환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국채 이자 수익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BUIDL은 전통 금융의 수익성과 블록체인의 시장의 유동성을 결합하면서 시장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거래소 유동성과 디파이 담보 자산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비중은 전체 공급량의 10% 미만에 그친다(Figure 15). 그럼에도 이들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자산을 활용한 수익형 구조를 통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이자 수익을 제공하며 구조화된 온체인 금융 상품으로서 존재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USDe, USDS/DAI 등이 대표적인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들 대부분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점차 디파이 생태계 내 수익형 자산으로서의 활용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Figure 15: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비중

출처: Coinmetr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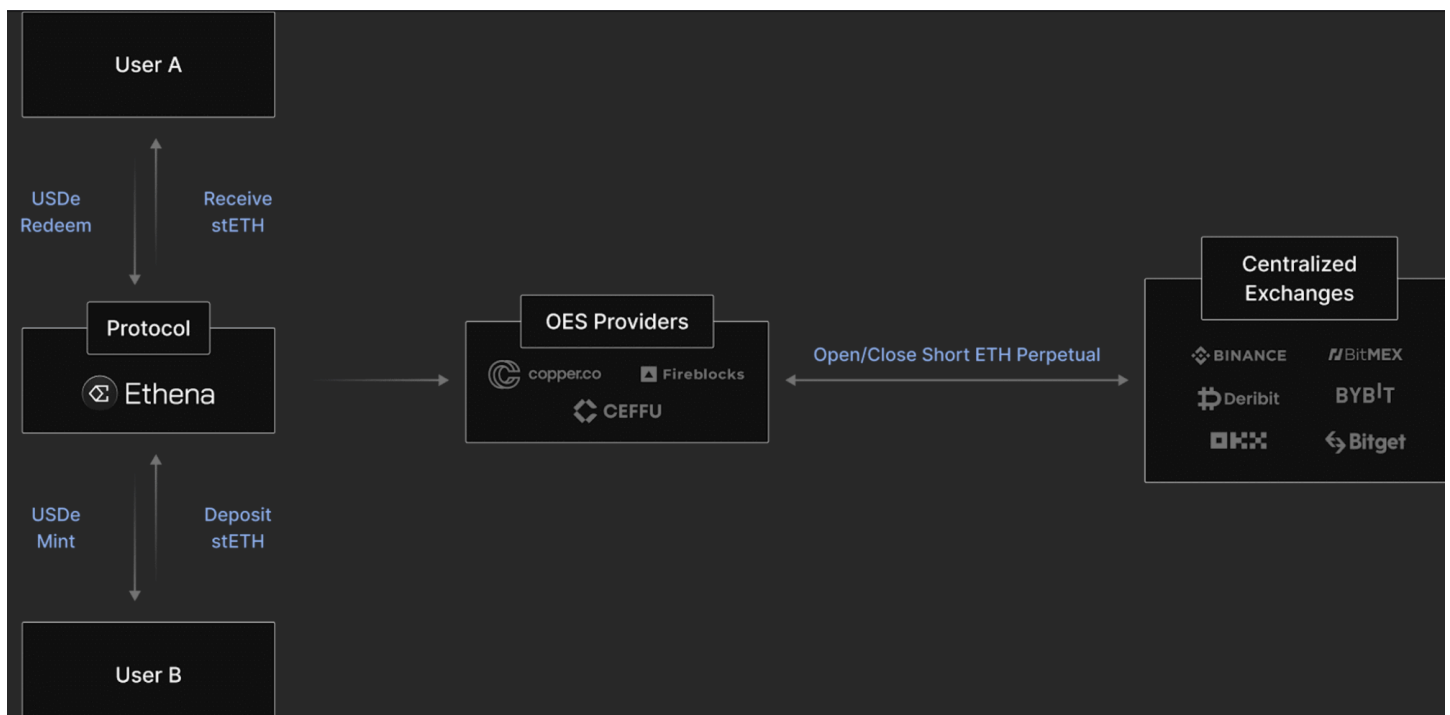


에테나의 USDe

에테나에서 발행하는 USDe는 가상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며, 델타중립 전략을 통해 1달러에 가치가 연동되는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이다. 델타중립 전략이란 담보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취하는 전략이다(Figure 16). USDe는 이더리움 기반 유동화 스테이킹 토큰(Liquid Staking Token, LST)을 담보로 예치하고, 동시에 CEX에서 동일 규모의 무기한 선물 숏 포지션을 개설한다. 이때 담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숏 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하지만 담보 가치 자체는 상승해 전체 자산 가치가 유지되며, 반대로 담보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는 숏 포지션에서 수익이 발생해 손실이 상쇄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USDe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으로부터 자산 가치를 보호하고 1달러 페깅을 유지하고 있다.

Figure 16: 에테나의 USDe 발행 메커니즘

출처: Gate.io



에테나는 USDe를 담보로 예치하고 수령한 LST의 스테이킹 리워드와 무기한 선물 시장의 숏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펀딩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사용자는 USDe를 에테나 프로토콜에 스테이킹함으로써 sUSDe를 수령하게 되며, sUSDe 토큰 보유자는 에테나가 거둬들이는 수익을 분배받는다. sUSDe는 에테나의 수익이 토큰의 내재가치에 반영되며, 언스테이킹 시 예치 시보다 더 많은 USDe로 교환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사용자는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달러 자산을 예치하고 수익을 획득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에테나는 sUSDe를 통해 [평균 7.45%](#)라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디파이 생태계에서 USDe의 존재감을 빠르게 키웠다. 특히 [2024년에는 한 해 동안 평균 약 18%의 연이자율\(APY\)을 제공](#)해 많은 사용자가 USDe로 몰리게 되었다. 그로 인해 출시 약 1년만인 2024년 말 공급량이 58억 달러에 이르러 [메이커다오의 DAI를 제치고 스테이블코인 공급량 기준 3위를 차지](#)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USDe는 담보 운용과 헷징을 통해 1달러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예치 수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알파 추구형 달러’로 자리잡았다.

USDS/DAI

USDS는 스카이 프로토콜(구 메이커다오)에서 발행되는 가상자산 초과담보형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더리움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발행되어 1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구조를 가진다. 2024년 [메이커다오의 ‘엔드게임\(Endgame\)’ 전략](#)의 일환으로 메이커다오가 스카이 프로토콜로 리브랜딩되면서, 기존 스테이블코인인 DAI도 USDS로 리브랜딩되었다. 사용자들은 [2024년 9월부터 기존 DAI를 USDS로 1:1 스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왑을 선택하지 않은 DAI도 여전히 레거시 토큰으로서 프로토콜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DAI와 USDS가 병존하지만, 장기적으로 DAI는 USDS로 전환이 진행되어 스카이 프로토콜의 기본 스테이블코인은 USDS가 될 예정이다.

DAI와 USDS는 각각 DSR(DAI Savings Rate)과 SSR(Sky Savings Rate)이라는 예치형 수익 모델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DAI 또는 USDS를 예치함으로써 각각 sDAI와 sUSDS라는 이자 지급형 토큰을 받을 수 있다. 두 자산 모두 예치 원금에 기반하여 수익을 제공하지만, 수익이 유입되고 분배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sDAI는 스카이 프로토콜 전반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정 비율이 예치자에게 분배되는 방식이다. 수익이 어떻게 얼마만큼 유입될지는 유동적이며, 분배는 정기적으로 반영된다. 이에 반해 sUSDS는 Spark 등 서브다오에서 얻은 수익이 SSR에 빠르게 유입되어, sUSDS 토큰의 가치에 신속하게 반영되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한 시점과 사용자의 수익 반영 시점 간의 간극이 sUSDS 쪽이 상대적으로 짧다.

DAI와 USDS 모두 온체인에서 담보 제공, 예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 주요 활용처와 생태계 상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 DAI는 출시 이래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으로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Aave, Compound 등 주요 렌딩 프로토콜에서 대출 담보 및 예치 자산으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으며, 유니스왑 등 DEX에서 사용되는 ‘디파이 범용 달러’로 자리잡았다. 반면 USDS는 스카이 프로토콜의 서브다오 생태계에 최적화된 설계를 기반으로 활용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예컨대 USDS는 스파크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스파크렌드(SparkLend) 등 여러 서브다오의 주요 유동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메이커다오의 ‘엔드게임’ 로드맵에 따라 향후 다양한 서브다오에서

USDS가 기본 스테이블코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탄탄한 활용처를 바탕으로 DAI/USDS는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4위를 유지하고 있다.

위의 분석을 종합하면, USDT는 거래소 간 송금 및 정산, 결제 등에 활용되며 중앙화 ‘거래소 및 결제 중심 달러’로 기능하는 반면, USDC는 디파이 담보 및 트레이딩에 활용되는 ‘디파이 특화 달러’로 자리매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UIDL은 미국 국채 기반 수익을 자동 분배하는 토큰화 펀드로, 주요 거래소와 디파이에서 담보 자산으로 채택되기도 하면서 ‘실물자산 수익형 달러’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편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중 대표적으로 USDe는 변동성과 차익거래를 이용한 ‘알파 추구형 달러’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또한 DAI와 USDS는 온체인에서 담보 제공 및 예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디파이 범용 달러’로 활용되고 있으며, 엔드게임 로드맵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USDS는 현재 ‘서브다오 중심의 생태계 달러’로 사용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체인별 활용 양상

스테이블코인의 온체인 활용 양상은 사용하는 블록체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안정성이 높은 대신 수수료가 비싸고 느린 이더리움과 트론·솔라나 등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낮은 대신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높은 체인 간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주된 활용 양상에 뚜렷한 차이가 관찰된다. 따라서 체인별 활용 양상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의 온체인 실사용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섹션에서는 주요 블록체인별로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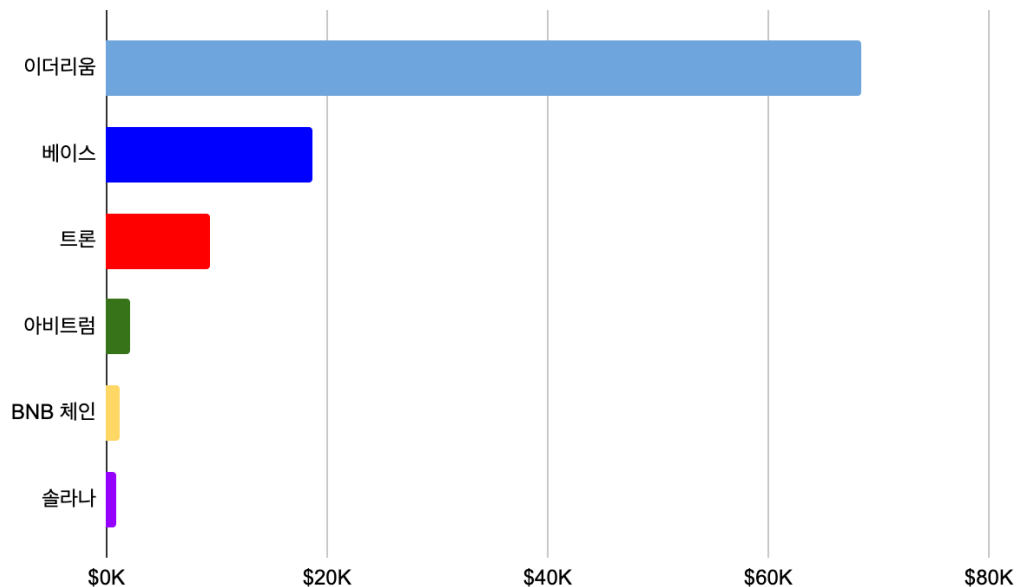
이더리움: 대규모 자금 이동 및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중심지

이더리움은 CEX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활용의 중심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약 54%가 이더리움에서 발행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보안성과 안정성이 높지만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고빈도 트레이딩⁷에는 적합하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트랜잭션에서도 드러난다. 이더리움은 높은 보안성을 바탕으로 평균 스테이블코인 전송 규모가 약 69,000달러 수준으로 모든 체인 중 가장 높았으며(Figure 17), 이는 이더리움에서는 주로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자금 이동이 발생하는 것을 시사한다.

Figure 17: 주요 체인별 스테이블코인 평균 트랜잭션 규모

출처: 코빗 리서치, Artemis Analytics

* 2025년 7월 22일 기준



⁷ 고빈도 트레이딩(HFT, High-Frequency Trading)은 초단위, 밀리초, 또는 마이크로초 단위로 다수의 주문을 자동 실행하는 거래 방식이다. (출처: [Investopedia](#))

또한 이더리움은 디파이 생태계의 규모 및 다양성 면에서 가장 앞서있기 때문에, USDC, DAI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이 담보 및 유동성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발행 및 운용되고 있다. 일례로 USDe, DAI/USDS의 공급량 중 95% 이상이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이더리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파이 활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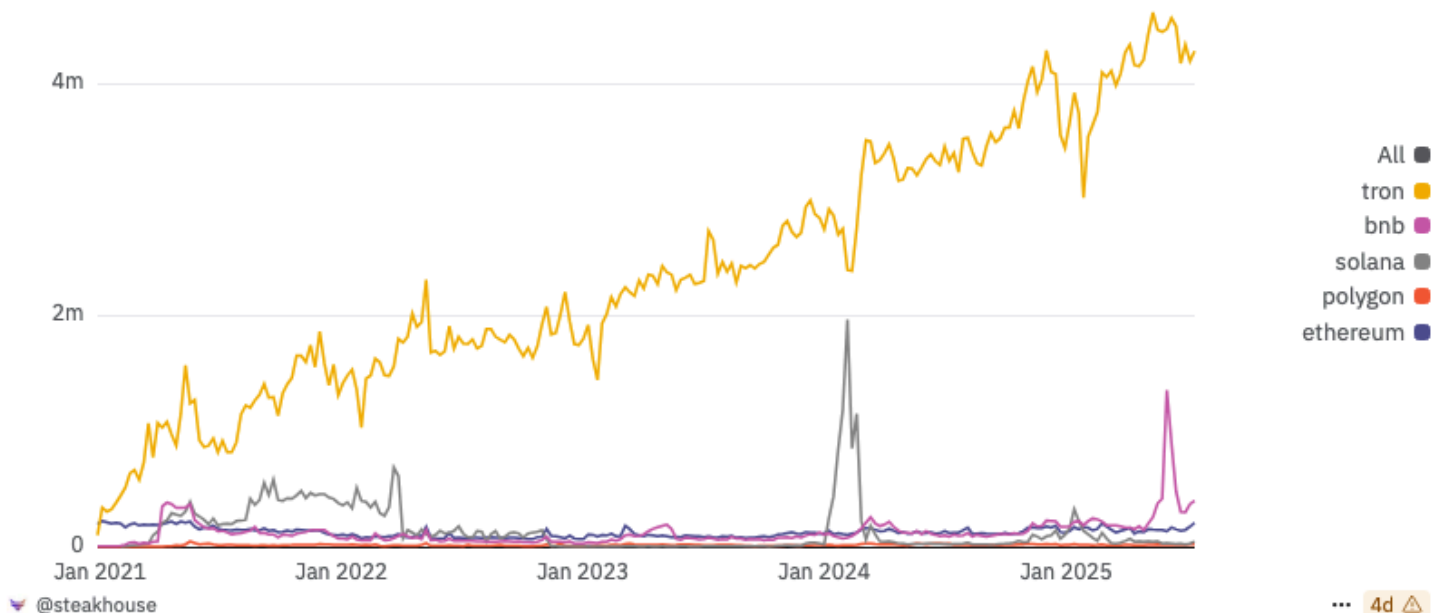
트론: USDT 중심 소액 거래 특화 블록체인

트론은 USDT 중심의 소액 송금 및 자산 이전에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론은 전체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814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체 체인 중 스테이블코인 공급량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론 블록체인 상 스테이블코인 중 98%는 USDT가 차지하며, 트론은 USDT 중심의 송금 및 결제용 체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트론은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USDT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에 비해 소액 이용자 풀이 넓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만 달러 이하 USDT 트랜잭션 건수에서 트론은 타 체인을 압도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Figure 18), 이는 트론 네트워크가 스테이블코인 소액 이체 및 거래에 가장 활발한 블록체인임을 보여준다.

Figure 18: 1만 달러 이하 규모 USDT 트랜잭션

출처: Dune(@steakhouse)

\$1-10k Transactions USDT across cha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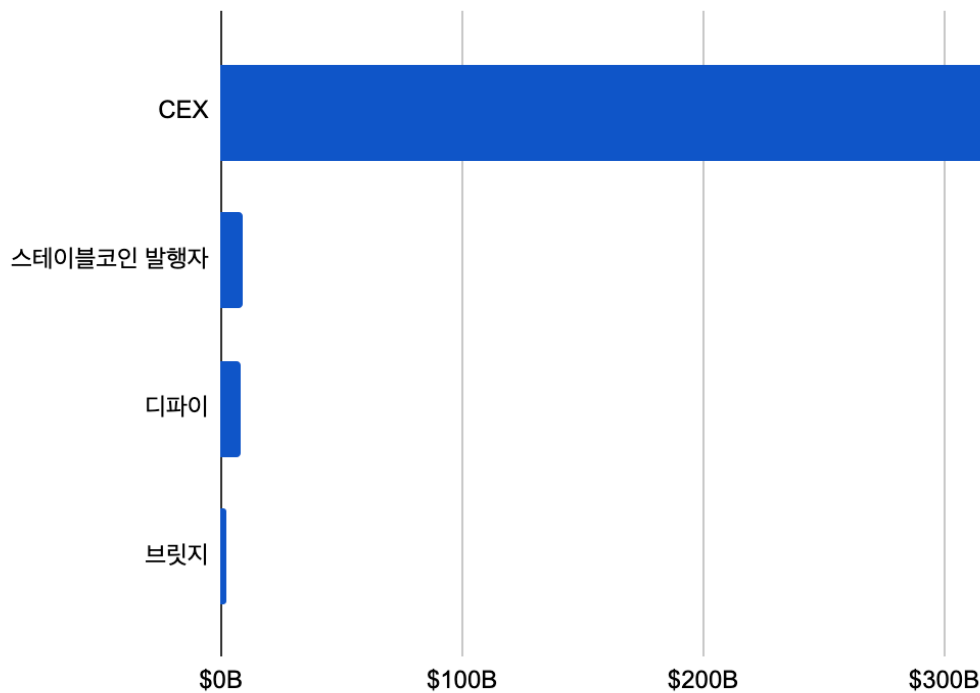
또한 트론 네트워크는 [저렴한 수수료와 높은 처리 속도를 바탕으로 소액 송금·거래소 간 자금 이동·P2P 결제에 특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디파이에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 비중은 이더리움, 솔라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트론에서 발행된 전체 스테이블코인은 814억 달러인데 반해

디파이 생태계의 전체 TVL은 59억 달러에 불과하며, 트론 디파이 생태계 내에서도 자체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인 USDD⁸를 제외하면 디파이에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3개월 거래량 추이를 보더라도 CEX 거래가 90% 가량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디파이에서의 스테이블코인 활용은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Figure 19). 이러한 맥락에서 트론은 거래소·리테일 중심의 자산 이전 기능에 최적화된 체인이며, 디파이보다는 거래소 송금 및 결제에 주로 활용되는 네트워크임을 알 수 있다.

Figure 19: 최근 3개월 트론의 섹터별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출처: 코빗 리서치, Artemis Analytics

* 2025년 7월 22일 기준



⁸ USDD란 트론에서 발행된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으로, USDD는 트론 다오 리저브가 관리하며, TRX, USDT 등 다양한 자산으로 초과담보를 유지하고 있다. (출처: [USDD Do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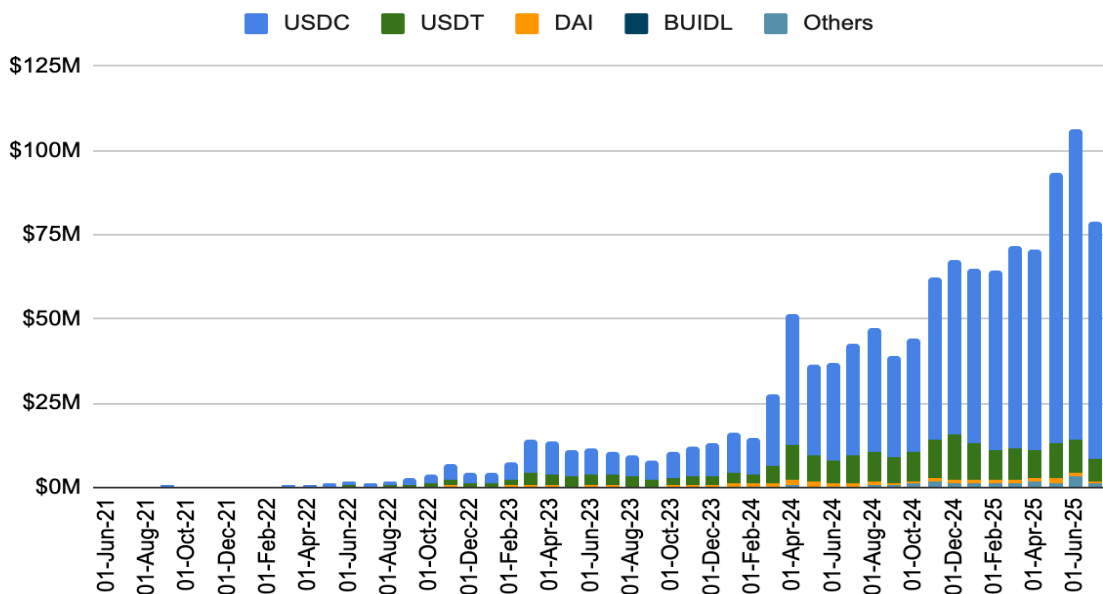
솔라나: 디파이 중심 소액·고빈도 트레이딩

솔라나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디파이 중심 고빈도 트레이딩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23년 하반기 솔라나에서 밌코인 트레이딩 열풍과 함께 온체인 거래가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솔라나 네트워크 상 디파이들의 채택에 힘입어 USDC가 핵심 자산으로 자리잡으며, 2025년에는 솔라나 상 USDC 발행량이 50억 달러를 돌파했다(Figure 20).

Figure 20: 솔라나 스테이블코인 자산별 공급량 추이

출처: 코빗 리서치, Artemis Analytics

* 2025년 7월 22일 기준



또한 솔라나에서는 이더리움, 트론 등에 비해 소액·고빈도 트레이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2024년 이후 솔라나의 USDC 트랜잭션 건 수는 월 1억 건을 넘었으며, 그 중에도 100 달러 이하 소액 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Figure 21). 솔라나의 최근 3개월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순위에서 디파이와 MEV가 1, 2위를 차지하는 등 트레이딩 중심 용도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Figure 22). 이처럼 솔라나는 높은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 구조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고빈도 트레이딩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Figure 21: 솔라나 USDC 거래 규모 추이

출처: Dune (@vetal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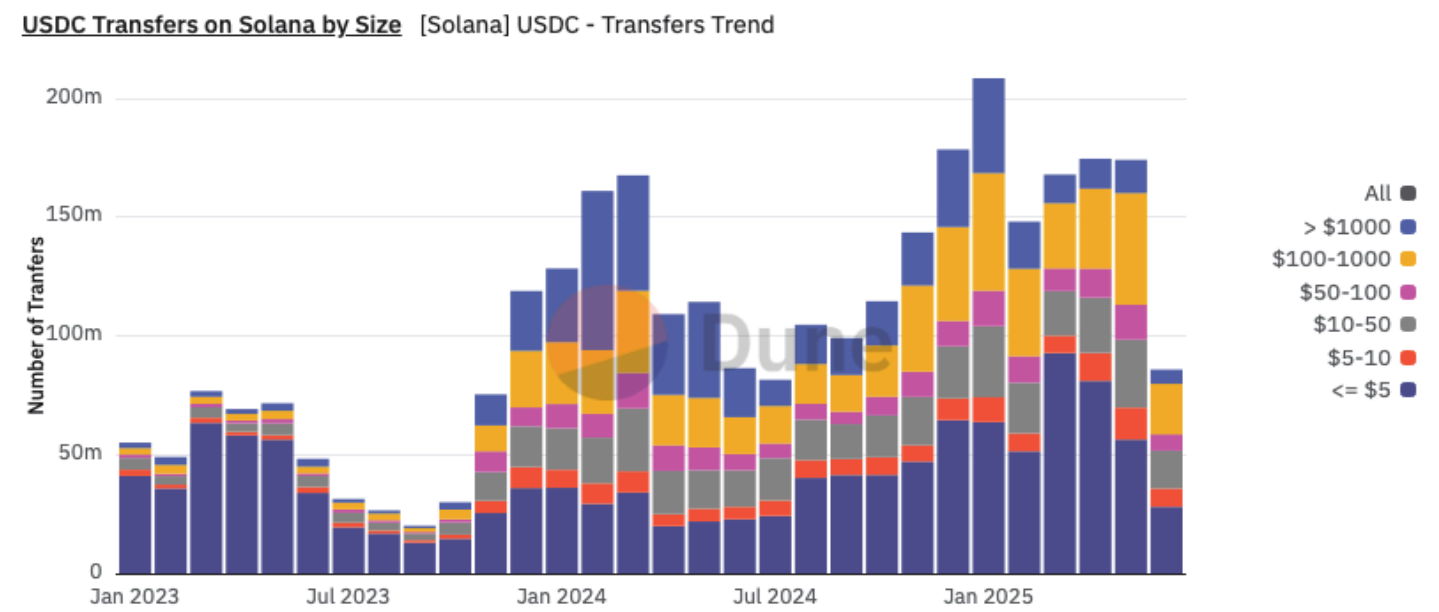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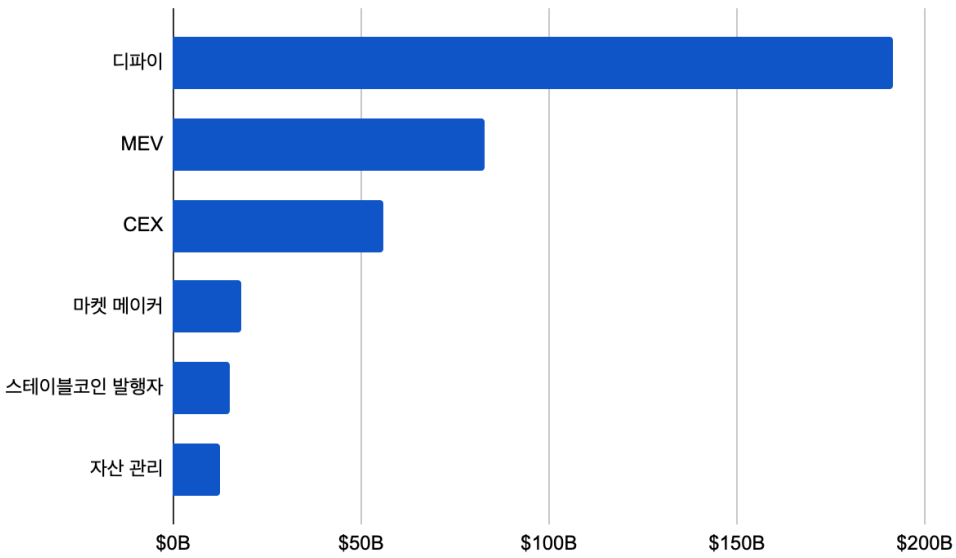


Figure 22: 최근 3개월 솔라나 섹터별 거래량

출처: 코빗 리서치, Artemis Analytics

* 2025년 7월 22일 기준



베이스, 아비트럼: 같은 레이어2라도 활용 양상은 상이

최근 이더리움의 대표 레이어2에서도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이스와 아비트럼이 최근 들어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레이어2 체인이다. 이 두 체인에서는 2024년부터 USDC의 공급량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5년에는 두 체인 합산 USDC 공급량이 총 120억 달러 수준에 도달했다(Figure 23).

이렇게 공급량이 급증한 이유를 살펴보면, 베이스는 2024년 밌코인 트레이딩 열풍을 계기로 USDC 수요가 급증하며, 솔라나와 같이 소액·고빈도 트레이딩 위주의 거래가 발생했다. 한편 아비트럼은 2024년 하이퍼리퀴드가 크게 성장하면서, 하이퍼리퀴드로의 USDC 유동성 유입 창구인 아비트럼 상 USDC 공급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두 체인 모두 이더리움 기반의 신뢰성과 레이어2의 낮은 수수료에 힘입어 스테이블코인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스와 아비트럼의 최근 3개월 간 스테이블코인 섹터별 거래량은 주로 디파이와 MEV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Figure 24). 다만 두 체인의 디파이 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베이스의 경우 BRETT과 같은 밌코인의 성공으로 밌코인 트레이딩이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증가시켰다. 반면 아비트럼의 경우, GMX 출시 이후 디파이에서의 존재감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나, 하이퍼리퀴드의 영향으로 인해 디파이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아비트럼의 스테이블코인 공급량 중 90% 이상이 하이퍼리퀴드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Figure 23: 베이스, 아비트럼 자산별 공급량

출처: 코빗 리서치, Artemis Analytics

* 2025년 7월 22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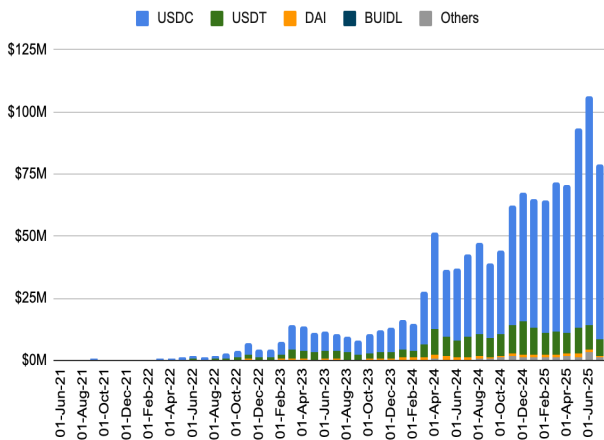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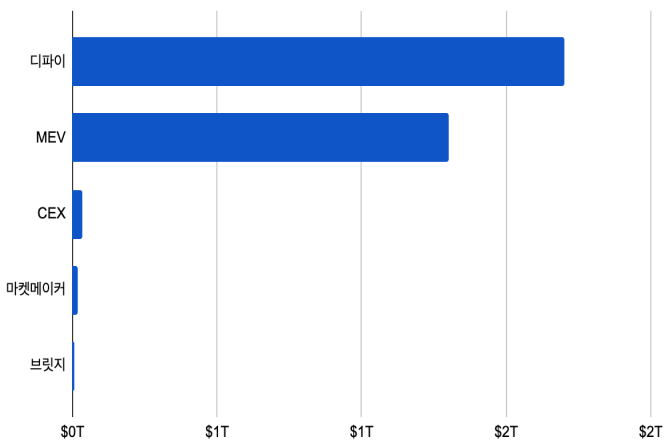


Figure 24: 최근 3개월 베이스, 아비트럼 섹터별 거래량

출처: 코빗 리서치, Artemis Analytics

* 2025년 7월 22일 기준



이처럼 체인별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양태는 네트워크 구조, 수수료 환경, 생태계 특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더리움은 높은 보안성과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자산 운용 및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특화된 반면, 트론은 낮은 수수료와 빠른 전송 속도를 기반으로 소액 송금 및 거래소 간 이체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솔라나는 고빈도 디파이 트레이딩에 집중되어 있으며, 베이스와 아비트럼은 같은 이더리움 레이어2 체인이더라도 각각 밌코인과 파생상품 거래소 전송 중심의 트랜잭션 구조를 통해 차별화된 스테이블코인 활용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면, 각 체인별로 스테이블코인의 쓰임새 또한 구조적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25).

Figure 25: 체인별 주요 스테이블코인 및 스테이블코인 활용 양상

출처: 코빗 리서치, Artemis Analytics, Dune(@steakhouse, @vetalx)

체인	주요 스테이블코인	활용 분야	거래 규모/ 특성	활용 양태
이더리움	USDC, USDe, DAI/USDS	담보 예치,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가장 큰 평균 트랜잭션 규모 (약 69,000 달러)	대규모 자산 운용 및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예치 중심지
트론	USDT	거래소, 소액 송금	1만 달러 이하 거래 압도적	저비용·고속 송금 특화. 리테일 거래 및 거래소 간 이동에 최적화. 디파이 활용은 제한적
솔라나	USDC	디파이, 밌코인	고빈도·소액 거래 중심	DEX 중심의 소액 트레이딩 및 밌코인 거래에 집중. 빠른 처리 속도와 저수수료로 리테일 활동 활발
베이스	USDC	디파이, 밌코인	고빈도·소액 거래 중심	2024년 밌코인 열풍으로 고빈도·소액 트레이딩. 리테일 중심 DEX 거래
아비트럼	USDC	디파이, 파생상품 거래소 전승	하이퍼리퀴드 중심 USDC 수요 증가	파생 DEX 하이퍼리퀴드와 연계된 담보 활용 수요로 USDC 공급 확대

시사점

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2025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핵심 테제는 ‘구조적 분화(structural divergence)’이다. 시장은 더 이상 일관된 흐름이나 하나의 수요 동인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며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그 활용 양상과 성장 동력이 갈리고 있다.

첫째, 사용처의 분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USDT는 트론 체인을 기반으로 한 ‘역외 결제 네트워크’로, USDC는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온체인 금융 인프라’로 각각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는 동일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라 하더라도 기술적 기반과 수요자에 따라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수익률 구조의 이질화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BUIDL과 같은 실물자산(RWA)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무위험 이자율을 온체인으로 이전하는 ‘효율성 혁신’을, USDe 등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과 차익거래 기회를 활용한 ‘알파(alpha) 추구형 혁신’을 대표하며 각기 다른 리스크-리턴 프로필을 제공한다.

셋째, 블록체인 인프라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 구조 역시 전문화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고가치 거래와 기관 디파이의 결제 허브로, 트론은 대량 소액 송금에 최적화된 결제 기반으로, 솔라나와 레이어2 체인은 고빈도 리테일 트레이딩의 거점으로 각각 역할이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체인별 기능 분화는 각 네트워크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목적과 가치 포착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체인-스테이블코인 간의 조합이 ‘경제 특구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의 구조적 분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가상자산이 실물 경제 및 글로벌 금융 질서에 편입되어가는 필연적인 변화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투자자 유형, 사용처, 기술 인프라, 규제 수준 등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기능과 수요 기반이 더욱 세분화되고 각 영역의 경쟁 구도도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예컨대 안정성과 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주체(예: 기관투자자, 패밀리 오피스)들은 규제 명확성과 인프라 신뢰도가 확보된 소위 [온쇼어\(onshore\) 시장](#)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현금성 자산의 대안으로 BUIDL, OUSG 등 RWA 토큰화 펀드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거나,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프로젝트(예: [서클 IPO](#))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 투자로 생태계 성장을 공유하려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 블록체인이 형성해가는 ‘경제 특구’ 인프라 레이어에서 새로운 유니콘을 선점하려는 시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론을 활용한 신흥국

결제 및 무역 금융 솔루션, 솔라나나 베이스에서의 리테일 트레이딩 혁신,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 L2 기반의 규제 친화형 디파이 등은 차세대 투자처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구조적 분화는 리스크와 기회가 동시에 확대되는 시장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다음 사이클의 승자는 이러한 복잡한 다극 시장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적용하며 분화된 영역 간 전환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포착한 주체가 될 것이다.

작성자

강동현 | Donghyun Kang

2023년 코빗 입사. (現)코빗 리서치 센터 Research Analyst.

(前)Xangle 리서치 애널리스트.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 과정 수료.

최윤영 | Yoonyoung Choy

2022년 코빗 입사. (現)코빗 리서치센터장.

(前)삼성경제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대 증권금융연구소 근무. 서울대 경영학 박사(Finance 전공). 미시간 대학교, 스미스여대 졸업.

법적 고지서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팀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자신의 판단으로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정보, 의견, 예측은 본 자료가 작성된 날짜 기준이며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 실적에 대한 지침이 아니며 미래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모든 의견은 자료 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당사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본 자료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모든 의견은 자료 작성자 개인적 견해로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